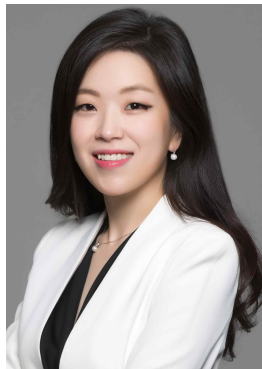


KG패스원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6 국가직 국어 해설

現)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 청솔, 비타에듀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메가스터디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수험생 여러분,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다.
더 참고 달이면 분명 집을 수 있습니다 - 나래국어

문 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어문규정 - 외래어표기법

나래 무료특강 <어문 규정 마스터 - 외래어표기법> - 모든 선지 적중

★ 정답 해설:

- shrimp - 쉬림프(X) 슈림프(O)
- 외래어표기법 제3장 표기세칙 제3항
-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 2.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문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형태론 - 보조사

나래국어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일타이피>에서 보조사 의미 출제요소 적중

보조사는 문법 형태소인 관계언이면서도 특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 표별 보조사: 表別, 다른 것과 표 나게 다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은/는, 만, 뿐, 밖에...

- 협수 보조사: 協隨, 다른 것과 비슷함, 의미 계열이 같은 보조사.

예) 도, 까지, 마저, 조차...

★ 정답 해설:

보조사 '은/는'에 대조의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시된 예문의 '는'은 강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보조사 '은/는'의 사전 정보 *

1.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사과를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

2.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나는 학생이다. / 편지는 "형님 보십시오"로 시작하였다.

3.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해야지. / 그렇게 천천히 걸다가는 지각하겠다.

문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나래 무료특강 <사자성어 비락치기> - ①③④ 선지 적중

나래국어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일타이피>에서 독해+성어 출제유형 적중

★ 정답 해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처음에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 가서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모함을 당한 사씨가 결국 누명을 벗게 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선지는 ④번이다.

★ 오답 해설: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히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④ 만시지탄(晩時之歎):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둘씩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은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내용 확인/일반추론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지문과 ‘일치하는/부합하는/바르게 이해한/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을 정답으로 하는 발문입니다. 나머지 3개의 선지는 지문에 의하면 옳지 않은 정보이거나 언급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었다가는 오히려 오답 선지에 맞춰 지문을 합리화(오독-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답 해설: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한 피실험자들 중 파트너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했다는 점에서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3만 원을 받은 피실험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더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와 같은 보수를 받은 피실험자들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③ 둘씩조를 지어 일을 했지만, 서로 다른 작업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협력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알 수가 없다.

④ 2만 원을 보수로 받은 피실험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문 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주제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발문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참이나 거짓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유사한 발문으로는 ‘글의 취지’, ‘집필 의도’, ‘창작 의도’ 등이 있습니다.

★ 정답 해설:

필자는 로마를 제일 먼저 보라고 권하며, 그 이유로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결국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된 내용이다. 필자는 문명관(文明觀)과 가치관이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문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지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③ 로마는 필자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든 근거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다.

④ 필자는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된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문 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산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잔혹한 압제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하렘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비문학 독해 - 주제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지문에는 ‘주어(중심 화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주제’란 지문에 제시된 중심 화제의 모든 서술어를 합쳐서 만든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찾으려면 지문의 많은 서술어를 경쟁시켜서 가장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하나의 서술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주제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잘 찾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도 내가 준비한 ‘가답안(스스로 지문을 읽고 요약하여 만든 주제)’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내기 위한 기준으로 가답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오답 패턴을 익혀두고 소거 기준으로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정답 해설:

지문은 조국의 위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며 역사적인 예를 들고 있다. 시인은 단순히 문화의 장식이 아니라 민족의 예언가나, 민족혼을 불려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의 제목은 말해진 임무라는 뜻의 ‘사명’이라는 단어를 쓴 선지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시인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② 운명(運命)이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인이 조국의 위기 상황에서 조국의 예언가가 되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이는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혁명(革命)이란, 기존의 기초나 체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문 7.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오시네, ㉠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뒷목.

-기형도, 「엄마 걱정」-

- ①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②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③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④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현대 운문 - 내용 이해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 문학 맛보기>

시는 부분(시어)으로 전체(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시)를 읽어야 부분(시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는 “A+B⇒A+B”가 아니라 “A+B⇒A+B+α”입니다. 시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선지에서 물어보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시 분석하는 도중에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전체적 정서를 파악한 뒤에 부분적 의미를 판단합니다.

★ 정답 해설:

이 시의 화자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아프게 회상하고 있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라는 구절은 당시 엄마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담은 표현일 뿐,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은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해’가 시들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해가 지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② ‘찬밥’은 어린 시절 외로웠던 화자를 표현한 보조관념이다.
④ 행상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공간인 빈방을 ‘금 간 창틈’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로 묘사하여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을 추론할 수 있게 하였다.

문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歸天)」-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꽃처럼 여겨졌다.
④ 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현대 운문 - 내용 이해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 문학 맛보기>

시어의 의미는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파악하도록 합니다. 시어는 화자와 공감되거나 적대적 관계가 있거나, 또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어 자체의 속성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 정답 해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죽음에 대한 초월을 주제로 하는 시이다. 여기서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은 인간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따라서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낸 선지 ③의 ‘꿈’이다.

★ 오답 해설:

- ① ‘눈물’은 어머니의 모성, 사랑, 헌신을 상징한다.
② ‘나뭇잎’이 원관념이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이 보조관념이므로 실제 아름다운 ‘나뭇잎’을 의미한다.
④ ‘구름’은 ‘엽매인 삶’의 반대인 ‘자유로운 삶’을 상징한다.

문 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장(廓正) ② 부상(扶桑) - 합지(咸池)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어휘 - 한자어의 의미 관계

나래 어숙성한 워크북 - ①②선지 적중

나래국어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일타이피> ④선지 적중

★ 정답 해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 합지(咸池)는 동쪽 양곡에서 뜨는 해가 질 때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으로, 다른 선지들과는 다르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광정(匡正): 바로잡아 고침
확정(廓正): 잘못을 널리 바로잡아 고침
③ 중상(中傷): 사실무근의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위신 등을 손상시킴
비방(誹謗): 남을 헐뜯어 말함
④ 갈등(葛藤):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
알력(軋轢): 의견이 서로 충돌됨

문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화법 - 말하기 방식

화법에서 말하기 방식의 부정발문은 비문학 독해에서 논지전개방식의 부정발문과 접근법이 같습니다. 선지를 먼저 본 뒤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참을 판단하여 선지를 소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정답 해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통 선박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관옥선을 소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있지만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오답 해설:

- ① 진행자는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등의 표현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진행자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관옥선”이라는 예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관옥선에 대한 설명에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문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나래국어 모두의 약점 특강 <띄어쓰기>에서 모든 선지 적중

나래국어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일타이파> 정답 ④선지 조사 ‘하고’적중

★ 정답 해설:

규정 제 41항에 따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밑줄 친 조사는 모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은 ④번이다.

하고: (체언 뒤에 붙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오답 해설: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보다: (체언 뒤에 붙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같이:(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커녕:(체언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문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을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을: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썰이 아니었다.
- 불썰: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어휘 - 고유어

나래 무료특강 <어휘 마스터> + 어숙성한 워크북

고유어는 학습해야 할 범위에 비해 득점할 확률이 낮죠 T.T

예의를 다 하는 선에서 교과서 수록 고유어와 혼동어휘 위주로 공부합니다.

★ 정답 해설:

‘안갯을’은 마음을 다해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보복을 뜻하는 ‘안갯음’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 반포지효(反哺之孝)가 있다.

문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다.
- ③ 무슨 일인지 킷발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판지가 땀긴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어문규정 - 표준어규정

나래국어 무료특강 <어문규정 마스터>에서 ②③선지 적중

★ 정답 해설:

눈알이나 눈알 앞쪽의 도톰한 곳을 일컫는 ‘눈망울’이 연상돼 코끝 양쪽으로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콧망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지만, 코끝이 두 개의 방울링 붙어 있는 것처럼 생겼다는 것을 떠올리면 ‘콧방울’이 바른 표현이다.

★ 오답 해설:

- ② 눈초리 : [명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 ③ 킷발 : [명사] 킷발
- ④ 장판지 : [명사] 종아리에 살이 불룩한 부분.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결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닮고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때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규보, 「경설」 중에서 -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할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고전 산문 -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세상에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거사에 말에 비추어 볼 때, 거사는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는 ④번이다.

★ 오답 해설:

- ① 거사는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다고 하였다.
- ② 거사는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잘생긴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못생긴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 ③ 거사는 나그네에게 거울이 흐린 상태로 두고, 거울을 보는 것은 흐린 것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또, 잘생긴 사람이 왔을 때 거울을 닦아도 늦지 않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거사의 처세관을 알 수 있다.

문 15. ㉠ ~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 -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 -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 ③ ㉢ -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으로 수정한다.
- ④ ㉣ -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쓰기 - 고쳐쓰기

2015년에는 자료 활용, 올해는 고쳐쓰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화법도 2문항 출제된 것으로 보아, 공시도 작문과 화법이 반영된 수능형 시험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 계획, 자료 활용, 개요, 조건 표현, 고쳐쓰기 등의 유형별 해법을 익혀야 합니다.

★ 정답 해설:

'경원'이란 '궁경하되 가까이하지는 않음'을 뜻한다. '경원되다'라는 피동형 표현을 '경원해서는'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원을 사다'는 주체가 남들의 '경원'을 당하는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 오답 해설:

- ①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내용 연결을 볼 때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떡 먹은 입 쓸어 치듯'은 '떡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쓸어 내며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일컫는 속담이다. 내용상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모습을 나타낸 속담이 들어가야 하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이 적절하다.
- ④ 앞뒤의 내용이 소득 재분배에 관한 것이므로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촉진에 대한 문장은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 16.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 ④ 대화가 어디로 뿔지 아무도 몰랐다.

★ 정답: ③

★ 문항해결법: 이론문법 - 통사론 - 문장 짜임새

나래국어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일타이피> 문장의 짜임새 출제요소 적중 이론 문법의 출제 비율이 줄어든 만큼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사론은 예문을 통해 문장 짜임새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올바른 표현까지 연계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정답 해설:

문장의 주성분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아이들이 놀다 간'의 경우 '자리'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관형어는 주성분이 아닌 부속성분에 속한다.

★ 오답 해설:

- ① '교정이 넓다'는 전체 문장에 서술절로 안긴문장이다. 서술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 ② '비가 오기'는 전체 문장에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다.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목적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 ④ '대화가 어디로 뿔지'는 기본적으로 부사절이지만, 해당 문장에서는 '몰랐다'의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목적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문 17. ㉠ ~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엿맸다.
○ 남의 일에 지나친 ㉡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했다.
○ 비리 ㉣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 - 使喚 ② ㉡ - 間涉
③ ㉢ - 缺陷 ④ ㉣ - 剔抉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어휘 - 한자

★ 정답 해설:

- ② ㉡ - 間(사이 간), 涉(건널 섭)
옳은 표현 : 干(방패 간), 涉(건널 섭).
뜻 :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 오답 해설:

- ① ㉠ - 使(하여금 사/부릴 사), 喚(부추길 주)
뜻 : 남을 부추기어서 시킴
③ ㉢ - 缺(어지러질 결), 陷(빠질 함)
뜻 : 흠이 있어 완전(完全)하지 못함
④ ㉣ - 剔(빼 바를 척), 抉(도려낼 결)
뜻 : 살을 긁어내고 뼈를 발라냄

문 1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 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 정답: ④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현대 산문 - 형식 이해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 문학 맛보기>

★ 정답 해설:

몰두(沒頭)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餘裕)가 없어 어떤 일에 오로지 파묻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글에서는 진드기가 개의 살에 머리를 파묻고 피를 빨는 모습을 한자 그대로, 沒(빠질 몰) 頭(머리 두)로 해석했다. 통용되는 의미와는 다르게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동음이의어는 나와 있지 않다.
② 지문은 개의 몸에서 기생하는 진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엉뚱한 사건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③ 필자는 진드기를 묘사하며 이를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드기의 모습을 ‘몰두(沒頭)’라 부르려 한다면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문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필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애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테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하나 뽐쌀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테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물 것이 꼭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 (중략) …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관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④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정답: ②

★ 문항해결법: 문학 독해 - 현대 산문 - 형식 이해

나래 무료특강 <독해 알고리즘 - 문학 맛보기>

★ 정답 해설:

(중략)의 앞부분에는 ‘시골자’와 ‘표독한 위인’의 대화가 나타나 있고 서술자는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등을 통해 그들을 관찰 및 평가하고 있다. (중략)의 뒷부분에서 서술자는 그 대화를 듣고 놀란 자신의 심정을 제시하며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라는 대목을 통해 다른 인물들을 관찰·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 오답 해설:

- ① 서술자는 작품 밖의 인물이 아닌 작품 속에서 다른 등장인물을 관찰한다. 또한, 다른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전지적 서술자’라는 설명 또한 잘못되었다.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내의 관찰자이다.
④ 작품 속의 서술자와 작품 밖의 서술자가 교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연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 기>

- 대화(1) ㉠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 55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 너 몇 살이니?
 ㉡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 점심은 뭐 먹을래?
 ㉡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② 대화(2) :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③ 대화(3) :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④ 대화(4) :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정답: ①

★ 문항해결법: 화법 - 말하기 방식 이론

★ 정답 해설:

지문에 따르면 '관련성의 격률'이란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격률이다. 대화 (1)의 ㉡은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 체중을 물어보는 ㉠의 질문에 체중 외의 정보도 제공하였다. 이는 대화의 목적을 벗어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오답 해설:

- ② 백 미터 달리기에서 본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이 실제로 비행기보다 빠른 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③ ㉠은 ㉡의 나이에 대한 정보만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그가 물어보지 않은 형의 나이까지 대답하였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④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먹겠다는 것은 모호한 태도에 해당하므로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 발화이다.

<닥치고 고득점> 지방직+서울시 동형 모고

개강일. 시간: 4월 18일 (월) 09:00~13:00

강의 특징	지방직과 서울시의 유형을 완벽히 구현한 고난도 모의고사 출제!	
	75-85점 학생들을 90점대로 만드는 약점 진단지와 피드백 시스템!	
	개인별로 틀린 문항을 모아 약점 문제집을 만들어 드립니다.	
강의 일정	0주(4/11)	지식국어 이론 + 99제 독파
	1주(4/18)	닥치고 고득점 1-2회(2회) + 유사유형
	2주(4/25)	닥치고 고득점 3-4회(2회) + 유사유형
	3주(5/2)	닥치고 고득점 5-6회(2회) + 유사유형
	4주(5/9)	닥치고 고득점 7-9회(3회)
	5주(5/16)	닥치고 고득점 10-12회(3회)
	6주(5/23)	닥치고 고득점 13-15회(3회)
	7주(5/30)	2016 국립국어원 텀기
전략 및 Tip	실제 시험과 똑같은 패턴으로 "어렵게" 연습해야 이긴다! 약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모고! 틀린 문제들을 추적 기록하여 개인별로 틀린 문항과 유사 문항을 모아 약점 문제집을 만들어 드립니다.	